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 창세기 10:32**

창세기 10 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세계 지도이자 최고의 가이드 북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있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었다. 넉넉한 재산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식주와 안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돌봄의 전부는 아니었다. 노예생활을 하느라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함께 주어졌다. 그 지식의 결정체가 창세기 10 장의 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 인명, 지명, 주요 도시와 그 기원을 알게 되었다. 세계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광야에서 처음 모세오경을 읽는 출애굽 백성들이 받았을 지적인 충격을 생각해보라. 노예생활을 하며 배우지 못했고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세계와 열방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을.

이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된 인물이 세계 역사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명이 바뀌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인물과 지명들이 많이 있다.

야벳의 후손인 야완은 그리스의 옛 지명인 이오니아이고 함의 아들인 구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 명칭이다. 미스라임은 ‘두 개의 애굽’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上)이집트와 하(下)이집트로 나누어져 있었다.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은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1 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세운 도시 에렉은 고대도시 우룩의 히브리식 명칭이다. 앗수르와 니느웨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며 출토된 유물은 유럽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다. 가나안의 경계로 소개된 소돔과 고모라, 계속 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던 블레셋,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모리 족속,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엘람, 솔로몬이 금을 가져오던 오벨 까지. 창세기 10 장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지리 정보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원, 주요 도시를 상세히 알려준다.

세계지리, 인명, 지명에 관한 정보는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층만이 소유하고 은밀하게 후대에 계승되는 고급정보다. 노예였을 때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도, 필요도 없었다. 묵묵히 별들을 만들거나 전쟁에 동원되어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른채 싸우다 죽으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손에 쥐어 주셨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족보는 출애굽 1 세대들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들, 언어에 따른 나라와 민족의 분포. 그들의 조상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정치적 지형만이 아니었다.

넓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과 같이 조상 노아의 자손들이며 어떤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조상의 후손들이며 그

조상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음도 알게 되었다. 창세기 10 장의 족보는 출애굽 1 세대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써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족보는 재미가 없다. 족보의 인물들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족보가 의미있게 보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창세기 10 장의 족보와 우리의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와 성경의 족보가 연결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임을 밝히는 로마서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다. 그렇다고해서 창세기 10 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는다. 노예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이드북은 최고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우리의 여정이 닳산 곳에서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가이드를 주신다.